

따뜻한 만남으로 행복을 나누세요!

## 동국대학교일산병원 News Letter

## 01 따시종, 채잉훈듭 스님 초청법회 열어

교직원불자회 연우회(회장 구병수)는 1월 28일 티베트 따시종 켄뵤(학장)인 채잉훈듭 스님을 초청하여 1월 정기법회를 열었다.

채잉훈듭 스님은 금강승 성취법맥을 이어 학덕과 수행력을 겸비한 분으로 이날 법문에서는 “몸과 마음, 언어로 타인을 해롭게 하지 않는 ‘근본불교’와 남을 해치지 않는 것은 물론 타인을 이롭게 하는 ‘대승불교’를 설명하고, 타인을 먼저 생각하며 자신이 부처라는 자부심을 갖고 환자를 대하는 여러 분이아말로 일과 수행을 동시에 하는 것이라.”라고 전했다. 한편, ‘따시종’은 독바까규 법맥을 전승하는 곳으로 설법보다는 조용히 수행에 정진하는 가풍을 가진 마을로 현재까지 많은 외부 수행자들이 방문해 수행에 정진하고 있다. 평생 ‘무문관’ 수행을 하시는 스님들이 있는 따시종은 티베트 불교의 깊이와 지혜가 살아있는 아름다운 곳이다.



## 02 차세대 EMR 구축 시작을 알리며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은 장비의 노후화로 인한 전체적인 성능저하가 우려됨에 따라 보다 더 나은 고객 중심 서비스 및 편의성을 확대하고자 차세대 EMR(Electronic Medical Record, 전자의무기록시스템)구축에 들어갔다.

본 시스템은 본원과 서울캠퍼스와 협업으로 초안이 나왔으며 늦어도 3월 중순경에는 프로젝트의 첫 삽을 뜰 예정이다. 본 프로젝트는 3년 이상 소요되는 장기 프로젝트로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1월 23일과 1월 30일 주전산기 메모리 추가 증설 작업을 시행하여 메모리 부족으로 시스템이 느려지거나 정지되는 현상을 최소화했다.

전체적인 구축 계획은 약 8개월간의 업무 분석 및 설계 그리고 실제 구축 단계인 개발은 약 20개월 정도로 진행이 될 예정이다.

## 03 복부 온열요법 생강애엽팩 출시

동국대학교일산한방병원은 복부 온열요법 치료제인 외용부착형 생강애엽고를 출시했다.

생강애엽고는 애엽(쑥)과 생강 및 숯을 이용하여 복부를 따뜻하게 하는 복부온열요법의 일환으로 생강과 애엽을 추출, 농축 후 감압 건조한 분말과 숯, 아마씨유, 유칼립투스유를 혼합하여 제조했다.

애엽(쑥)은 몸을 따뜻하게 해주어 주로 하복부의 냉감에 사용되고 있으며, 생강은 초기 감기에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상복부를 따뜻하게 해주고 구토를 막아주는 효과가 있다.

숯은 동의보감에서 외용약으로 상처나 사마귀 등을 치료하는데 사용되었는데, 실험 연구에서 인체 내의 독성을 제거해주고 신장과 간기능을 회복시켜준다고 알려져, 염증성 질환 등에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다.

본원에서는 생강애엽고를 주로 암환자 면역력 증강 및 해독을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 04 파주시민을 위한 한방의료봉사

한방소아청소년과 민상연 교수는 동국대학교 한의과대학과 간호학과 학생들로 구성된 의료봉사단 ‘동현회’ 지도교수로 나서 1월 28일부터 2월 1일까지 한방무료진료를 실시했다.

동현회는 1982년 정지천 동국대학교일산한방병원장이 결성한 의료동아리로 약 30여 년 동안 여름과 겨울방학, 일 년에 두 차례씩 농어촌 의료사각지대를 찾아다니며 한방의료봉사 활동으로 의료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올해는 파주시 연풍리 민방위교육장을 찾아 의료사각지대에 있는 파주 시민 400여 명에게 침, 뜸 등의 한방치료와 한약재를 무료로 제공하여 병원에 가기 어려운 지역 어르신에게 큰 힘이 되었다.

앞으로 지속적인 봉사를 통해 30여 년의 전통을 이어나갈 계획이며, 의료봉사를 통한 나눔은 동국대학교 일산한방병원이 추구하는 지역사회와 함께하고 지역민에게 사랑받는 병원으로 거듭나는 밑거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주인공 45호

사회사업실

강보라



## 여러분이 주인공입니다

저는 사회사업실 강보라 선생님을 이번 주인공으로 추천합니다. 저와 강보라 선생님은 업무적으로 연결점이 없어 같이 일을 해본 적도, 길게 대화해본 적도 없어 오가다 만나면 간단히 인사만 하는 사이입니다. 그럼에도 제가 강보라 선생님을 추천하는 이유는 제가 어느 날 강보라 선생님의 전화를 받았을 때 선생님의 첫 마디가 아직도 머릿속에 맴돌기 때문입니다.

“우리 000 선생님 자리에 계십니까?”라는 강보라 선생님의 전화였습니다. ‘우리..’라는 말. 직장생활에서, 더군다나 서로 다른 부서의 사람을 부를 때 소화시키기 어려운 말인데, 그날 강보라 선생님의 ‘우리 000 선생님’이란 목소리가 그렇게 편했고, 우리 병원 구성원 모두가 가족이었다는 걸 잊고 있었음을 깨닫게 만드는 한마디였습니다.

강보라 선생님은 같이 일하는 사람을 아끼고, 배려하는 방법이 몸과 마음에 녹아 있다는 걸 그날 이후에 알았습니다.

‘우리가 남이가’라는 말처럼 가까운 곳, 사소한 일에서부터 서로를 아끼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우리’라는 양념이 첨가된 더 따뜻한 조직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의료정보팀김동훈

## 알 리 미

**무료영화상영** 상영작 : 대호 | 일시 : 2월 18일(목) 14:00 | 장소 : 5층 대강당

**유화작품전시회** 기간 : 2월 15일(월)~2월 27일(토) | 장소 : 1층 전시장

**건강강좌** 주제 : 전립선 비대증 | 강사 : 비노기와 이정우  
일시 : 2월 16일(화) 10:00 | 장소 : 일산종합사회복지관